

고창전통시장 활성화 나선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디자인·불거리 등 콘텐츠 개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9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지원받아 고창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인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특산물 등을 연계해 정보기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을 육성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에 탄력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급격한 유통환경과 소비문화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해 디자인·ICT융합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홍보 및 이벤트, 기반설비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불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되면서 활력을 얻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고창군의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 먹거리를 비롯해 계절별 축제 등이 조화를 이뤄 찾아오는 재미가 있고 구매하는 즐거움이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등 불거리와 풍천장어, 복분자, 멜론, 수박, 땅콩, 고추 등 먹거리와 연계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춘향선발대회 참가자 접수

24일까지... 1994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남원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전위는 JTV전주방송사를 춘향선발대회 주관방송사로 선정,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일 저녁 광한루원 일원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1994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로 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희망지는 JTV전주방송 홈페이지(www.jtv.co.kr) 또는 춘향제 홈페이지(www.chunhyang.org)에서 원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2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결과는 27일 공지된다.

4월 1일, 4월 2일 1·2차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30명을 확정하고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남원 예선에서 합숙과정을 거친 뒤 5월 2일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은 진·선·미·정·숙·현과 해외홍포상, 우정상 등으로 우리나라 전통미인의 아름다움과 춘향사랑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사절로 활동하게 된다.

김진석 춘향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춘향선발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펼쳐지는 제87회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의정실에서 2016 회계연도결산검사를 실시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위원으로는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한명숙 의원, 김경석, 박오성, 장영식, 장주호 씨 등이 위촉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확인해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명숙 대표위원은 "매년 반복된 결산심사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남원시가 행한 전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감사위원은 남원시장에게 감사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제출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남원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오수청년회의소, 3·10만세운동 재현

오순문화체육센터서 개최

1919년 3월 10일 임실군 오수 시가지와 오수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전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의 오수 3·10 만세운동은 나라 잃은 설움과 분노를 초등학생들이 앞장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된 대표적인 독립운동사로 같이 남고 있다.

해마다 임실군에서는 이날이 되면 3·10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에게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10일에도 어김없이 임실군과 오수청년회의소는 3·10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오순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는 이날 행사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조준태 전주보훈지청장, 각계 기관단체장 등과 학생, 독립운동자,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은 오수 3·1동산에서의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되고 기념사와 축사, 백일장대회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3·10만세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되살리고, 3·1운동의 33인중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을 비롯해



1919년 3월 10일 임실군 오수 시가지와 오수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전국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희생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님이 깃든 오수지역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3·10 만세운동은 오수보통학교(현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돼 오수지역에서 전개된 초등학생 독립운동으로, 15일에는 장수와 남원 등 인근 주민 1,000여명이 오수 주재소 습격과 만세운동을 벌였다.

23일에는 대대적인 3·1운동으로 승

화되었으며, 이후 오수는 학생 만세운동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된 전국 만세운동을 이끌어낸 대대적인 만족운동 지역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심민 군수는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임실군 오수지역 초등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했던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이길수 부군수, AI 방역초소 안전점검 실시

고창군 이길수 부군수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지역 내 시설물 위험지단의 일환으로 AI 방역초소 및 매몰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길수 부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축 질병 매몰지 관리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최근 아산면과 무장면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해당 농장의 닭과 오리들 매몰 처분하고 농장 이동제한과 사람,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대(2개반),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방역 속도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 예방접종과 예방교육을 비롯해 AI 발생농장 주변에 생식회 200포를 살포했으며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행동 요령을 홍보하면서 가금농가 진입로 주변 중점 소독과 지속적인 농가예찰을 통해 AI 차단방역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날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AI 방역초소 및 매몰지를 비롯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대형숙박업소, 급경사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봄철을 맞아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 전 전북도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철(26.9%)이 아니라 봄철(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야는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등 야외 화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3월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로 집계됐다. 이에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이 증

가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봄철 화재예방대책이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 산물활동 강화, 전통시장 안전관리, 여행주간 및 안심수화여행 지원,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신학기 및 방과 후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 문화재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남원 지역에는 춘향제 등 4~5월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